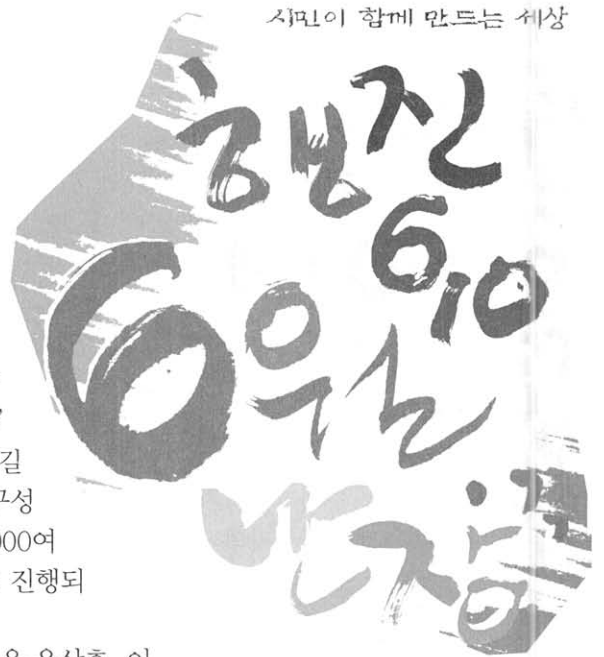


시민이 함께 만드는 세상

민주주의 시민축제



사업회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민주주의 시민축제 ‘행진610-6월난장’이 지난달 12일(토)에 서울광장과 장충단공원~남산 길에서 펼쳐졌다. 행진610, 시민난장, 386콘서트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작약하는 6월 피약별 아래서도 5,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.

6월의 꽃으로 추천된 인사들과 함께 한 ‘행진610’은 이상호, 이인영 등 386세대 국회의원과 조선족 복지선교센타 소속 조선동포 500여 명, 퀴어문화축제준비위 회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단공원~남산 북측 산책길~남대문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대열을 형성했다.

장터, 마이너리티, 커뮤니티, 전시, 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세상으로 이루어진 ‘시민난장’은 아름다운 가게, 학벌 없는 사회, 이주노동자모임, 청소년동아리연맹, 시습클럽, 공공문화개발센터 URART, 반쪽이 공방, 최병수 등 18개 단위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선보였다.

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‘386콘서트’는 한울소리의 개막공연 타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손병휘, 이정렬, 손현숙 등 민중가수와 어린이합창단이 어우러지고 홀리건, 슈퍼특공대 등의 인디밴드 공연과 춤추는 언니들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절정에 다다랐다. 절정을 타고 넘어 록그룹 우리나라와 강산에 밴드의 노래들로 마무리되었다.





항쟁 610 6월 10일 비극의 날

